

여성문화정책뉴스 4월 2차

	<p>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만 11~18세에서 만 9~24세로 확대</p> <p>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개정안, 12(화) 국무회의 통과 -</p> <p>■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이 4월 12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</p> <p>■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</p> <p>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기존의 만 11~18세에서 만 9~24세로 확대</p>	[출처]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(http://www.mogef.go.kr/nw/rpd/news_rpd_s001d.do?mid=news405&bbtSn=708508) 2022.04.12.
2	<p>성평등 체감도 상승했으나 일터와 돌봄의 성별 불균형, 여성폭력 현실에 높은 문제의식</p> <p>- 「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」 결과 발표 -</p> <p>■ 2030 청년층,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사돌봄 분담 문화 점차 확산</p> <p>■ 지난 5년간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, 직장 내 성차별 관행 감소, 일·생활 균형 제도 이용 확산,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양성평등 인식·수준 대폭 개선</p> <p>■ 성별 관계없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의 경력단절, 고용 상 성차별,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, 다양화되고 있는 여성 폭력에 대한 두려움 등을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로 보고 있음</p> <p>■ 성평등 인식과 현실의 격차 해소 위해 일과 돌봄의 균형 있는 분배, 모두를 위한 사회적 돌봄 책임 강화,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추진 필요</p>	[출처]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(http://www.mogef.go.kr/nw/rpd/news_rpd_s001d.do?mid=news405&bbtSn=708519) 2022.04.19.

여성가족부,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실시

- 중앙부처기초 지자체 등 121개 기관 대상 -

- '21년 광역·기초 지자체에 이어 '22년 중앙부처까지 확대('21년 20개 → '22년 121개)
- '23년부터 공공기관,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
- 참여 기관은 인사제도 운용현황, 성별 직무배치 및 성별 일·생활 균형제도 이용실적, 조직 내 의사소통 양상, 성희롱·성폭력 대응역량 등의 조직문화 전반을 진단
-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고, 효과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

[출처]

여성가족부 보도자료
(http://www.mogef.go.kr/nw/rpd/news_rpd_s001d.do?mid=news405&bbtSn=708522)

2022.04.20.